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 후 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김정일이 방중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이러한 오보는 연합뉴스가 이날 오전 9시14분 '김정은 투번 통해 방중'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정부 당국, 그리고 북한 전문가들도 오보가 오보를 낳는 집단 오보를 만드는 데 한몫 하였다.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는 후 방중 주제가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인지를 확인하는 문이 정부 당국에 물리자,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의 정황으로 봐서 오늘 새벽 김정은이 방중한 것으로 안다. 단독 방문인지, 김정일과 같이 갔는 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은 혼자 간 것으로 보이며 방문지는 베이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정은 방중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자 대부분의 언론은 김정은 방중 소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정은 방중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 것은 북한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되었음을 기정사실

화하고 중국으로부터 후계 구도를 인정을 받기 위해 김정은의 방중이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분석, 예견해 왔다. 그러나 9시간 지난 그날 오후 5시 중국 하이퉁항성의 무단장 시내 호텔에서 김정일이 머물

김정은 방북 오보와 지피지기

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정은 단독 방중 보도는 사실이 아닌 오보가 되었다.

언론의 임무임을 삼가할 때 이러한 집단적 오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오보가 북한과 관련해서는 유독 많고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오보가 난무하는 한 북한의 실체는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며 올바른 대북정책을 세울 수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오보와 황색지널리즘 (yellow journalism)이 가까운 보도가 난무하는 것일까? 북한의 폐쇄성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대중에게 나가기 전 더욱 신중하게 정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정황은 무엇인가?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벌써 오랜 전부터 공언해왔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 그리고 노동신문과 같은 공식 매체를 통해 강성대국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들은 강성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상·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의 세 가지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데 사상·정치 그리고 군사의 고지는

이미 점령되었으며 경제의 고지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경제 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국의 경제봉쇄를 받고 있는 북한의 실정에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필수사항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발은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즉 장시주(長吉圖·창춘-지린-부린) 개발선도지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라선, 청진, 원산, 신유주 등이 물류 및 산업 허브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2012년이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정지어야 하며 유일지도체제라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고려할 때 김정일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직접 확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중의 주역은 김정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의 김정은 단독방중의 오보는 북한을 그리고 동북아 정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언론과 정부 당국,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공편(謀攻篇)에서 손자는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고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하였으며 적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우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라고 하였다. 그러나 적의 실정은 물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여 대북 그리고 동북아 외교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지피지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경남대 정의와 비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김재욱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에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4월 수출액은 497억7300만 달러로 월간 수출액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현대차는 지난 1분기 1조8275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등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이 더딘 게 사실이다. 기존준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영세소상공인은 소비위축과 고유가·원재료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59만 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지만

영세상권 보호와 공동의 이익

휴업이나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57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창업한 지 3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55%라는 사실은 치열한 자영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낸다 하겠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경제의 주요 축인 대기업의 실적 호조 등 경기회복세가 풀뿌리 경제주체인 서민경제의 구석구석으로는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요즘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 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뜨거운 화두였던 '통큰치킨'과 현재 진행 중인 'SSM 규제법' 논란은 우리 사회의 상생과 공경함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양자는 모두 대규모 기업자본에 의한 영세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침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가격은 곧 경쟁력이다. 대규모 기업자본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물품을 싸게 살 수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해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주변의 영세업체는 파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대규모 기업자본은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영세업체는 한 가정의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세업체의 파산은 실직으로 직결돼 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제는 우리가 가격경쟁력 못지않게 염두해 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이익'여부다.

'통큰치킨'이나 'SSM 규제법'의 출발점은 영세상권 보호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상권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영세상권 보호는 장기적으로는 독점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자본에 의한 영세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침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의료 칼럼



최광주

얼마 전 10년간 당뇨를 앓아 온 50대 남자가 안과를 찾아왔다. 젊었을 때부터 눈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그는 최근 들어 유독 눈이 침침하다며 노안을 의심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밝혀졌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 온 이 중년신사는 당뇨가 눈에 합병증도 시력이 떨어졌다는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환자들의 눈에 발생해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당뇨로 인한 대표적인 눈의 합병증이다. 이 질환은 눈에 발생한 황반변성, 녹내장과 함께 3대 실명

당뇨 환자 실명 부르는 '당뇨망막병증'

질환으로 성인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위험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뇨환자들이 이 질환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편이다.

당뇨망막병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장애이다. 이때 눈의 망막에서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특정 신호를 보내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데, 이 혈관들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출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파손됨에 따라 나오는 혈액이나 진물로 인해 망막조직이 부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 주변에 흉터처럼 생긴 섬유 조직으로 인해 망막박리나 황반 손상이 일어나 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돼 망막 상태가 손상되고 시력상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작 환자 본인은 느끼

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법은 증상에 따라 레이저 치료, 유리체절제술, 항체주사 요법으로 구분된다. 레이저 치료는 망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망막 조직을 레이저로 응고시키는 치료이다. 이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고 시력손실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망막병증 초기에 주로 시행된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됐거나 혹은 레이저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출혈 및 망막박리가 일어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법인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다. 유리체란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색 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을 말하는데 안구에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물체의 상이 맺히도록 하는 안 매질이다. 유리체절제술은 당뇨로 인해 유리체가 혼탁돼 시력이 상실된 경우에 유리체의 혼탁을 제거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효과와 당뇨망막

병증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병증이 심한 환자들만 시행할 수 있으며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당뇨로 인한 시력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황반부종'인데, 최근에는 당뇨황반부종을 치료하는 데 있어 항체주사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치료는 황반에 부종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인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라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안구의 유리체 내에 주사해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특히 루센티스라는 약물은 올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약물을 안구에 투여하면 혈관내피세포와 직접 결합해 황반부종을 개선함으로써 환자 시력을 회복시킨다. 또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다. 질환 발생 초기부터 적절한 관리하면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선대병원 안과 교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불량식품 사 먹지 않도록 학교에서부터 적극 지도해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있다. 아이를 처음 초등학교에 들여보냈을 때 학교 생활에 대해서만 고민하던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교문만 나서면 아이를 유혹하는 게 주변에 너무 많이 걱정이다.

아이의 입학 뒤 얼마 동안은 집과 학교, 도서관과 태권도 학원 정도만 왔다갔다 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문구점에서 산다시피 한다. 그 이유는 문구점의 각종 군것질거

리가 아이의 발목을 잡아끌기 때문이다.

아이 입학 전에는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으로 고민하는 엄마들을 볼 때면 아이 관리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되어 보니 엄마가 나무라고,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문구점에 들어서면 온갖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같은 사탕, 껌, 젤리, 과자가 수북

하다. 냉장고에도 여러 가지 색깔의 '~맛' 빙과류도 꽉 차 있다. 대부분이 불량식품이다.

하지만, 문구점에서 과자를 파는걸 막을 수도 없고 사실상 단속도 불가능해보인다. 즉 현실과 법은 영 딴판인 세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문구점이 아이들을 상대로 제초화사도 적혀 있지 않고 성분과 유통기한조차도 없는 비위생적인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구점 사정이 비슷하다.

가정에서도 지도를 하겠지만 학교가 먼저 나서 교육 해주길 바란다.

▲김진숙·광주시 북구 충효동

시설

5·18 세계화, 그 후속과제 면밀히 쟁겨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유네스코 등재를 심사하는 국제자문위원회가 24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5·18 기록물의 등재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5·18의 세계화는 물론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그리고 오늘날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의 가치와 그 유산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유네스코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숭고한 저항을 담은 기록을 인류가 보존하고 후세에 교육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등재 신청 동기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등재되는 5·18 기록물들은 학생의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려 구속되고,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 곳곳하고 지속적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장엄한 기록

들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들과 함께 관련 기록물들을 어떻게 영구 보존하고 연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과제도 적지 않다. 광주시는 광주기록센터에 '5·18 아카이브'를 만들어 기록물을 보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보관 외에 자료 수집과 관리, 연구를 위한 '5·18 기록물 연구소'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자 처벌 및 진상 규명 등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5·18 정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데 대해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일부 우익 인사들이 유네스코 본부에까지 가서 5·18 기록물 등재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쳤던 게 나라 망신이 아닌가.

이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5·18의 텍스트를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이 유네스코 등재가 남긴 책무다.

불법·사기 대부행위 차단책 시급하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기 대부업이 극성이라고 한다. '빚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동안 잠잠했던 무등록 대부행위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광주지역 대부업법 위반사범은 41명에 이른다. 이들은 돈이 급한 소상공인이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이율(연 44%)보다 많은 이자를 받아 왔다. 심지어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면 사기·불법 대출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더욱 아슬아슬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들이 고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민금융대책 등과 같은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無 等 鼓

방송인 김재동씨가 배우 김여진씨를 '미친 X'이라고 비하한 박동모 한나라당 자문위원에 대해 '미친 X'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재동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잘 먹고 힘내서 쓸데없는 소리하는 진짜 미친 X들 자문 좀 해야겠습니다"라며 박 자문위원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실전의 배경이 된 것은 31주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지난 18일 배우 김여진이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당신은 일천구백삼십년, 오월십팔일 그날로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뚱대도, 당신은 확실자

입니다. 전두환씨"라는 글에 박동모 자문위원이 "미친X"라고 응수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박 자문위원은 '김여진 욕설 파문'에 따른 책임으로 한나라당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최근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광주

시민 20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 남녀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화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자 47%가 '5·18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많이 밝혀진 편' 36.7%, '모르겠다' 7.1%, '전혀 밝혀지지 않음' 5.0%, '거의 모두 밝혀짐' 4.1% 순이었다.

또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적인 날'에 5·18이 87.9%, '타지 사람들이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 역사적인 날'은 이라는 질문에도 역시 5·18이 82.5%를 차지했다.

이처럼 31년이 지나지만 아직까지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역사 앞에 밝혀야 할 전두환씨는 묵묵부답이다.

배우 김여진의 말대로 오월십팔일 그날로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전두환씨가 32주년이 되기 전에 자유를 얻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